

설비별로 보면 저·중·고층 각부에 각각 피난층을 정하여 유사시에는 이곳으로 긴급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층마다 피난용 발코니가 있어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구조대와 공정 피난사다리를 이용하여 지상까지 무사히 피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건물 양단에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여 피난시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층별로 면적, 용도에 따라 방화벽을 출입구마다 방화문을 설치해 놓고 있다. 전관의 내장을 불연성 재료로 사용하여 만일의 경우에도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연소확대 방지시설이 완벽한 것도 “대한생명 63”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이밖에도 전산화 시스템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방송설비등의 경보설비와 소화설비로서 스프링클러, 할론, 옥내소화전, 포소화설비 및 기타 방화셔터, 배연설비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시설들은 모두 컴퓨터로 처리되는 방재센터에서 감시·제어되고 있어 어떠한 사고도 초반에 진압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망과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방재센터에서는 그밖에도 지진과 풍향, 풍속등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다. 성능이 뛰어난 지진계가 있고, 풍향, 풍속

계속적으로 체크되고 있다. 물론 “대한생명 63”은 지진 7도까지, 풍속 40m/초까지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하고 튼튼한 구조물이지만 이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것은 작은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라 하겠다.

(주)대생개발 방재과는 방화관리체제 확립, 철저한 예방점검으로 화재요인 제거, 화재시 초기 진압태세 확립, 자위소방역량제고, 피난대책만전, 방재요원의 정예라는 방침아래 예방점검반, 상황감시조, 2분 대기조등으로 나뉘어 24시간 감시의 눈을 번뜩이면서 오늘도 더 완전한 예방대책, 진압대책, 피난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연구와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 삼성물산(주)

#### ●헝가리 교역 본격화/부타페스트지사 성황리에 개설

삼성물산(대표 이필곤)은 지난 5월 국내기업 가운데 최초로 헝가리에 지사를 개설함으로써 동구권 교역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날 삼성물산은 부다페스트 시내 PORUM호텔에서 개설 기념행사를 가졌는데, 이날 행사에는 GABOR-DEAU 헝가리 체육부장관 겸 올림픽조직위원장을 비롯해 현지 상공회

의소, 신탁은행등 금융계 인사, 무역공단 및 대형 거래선 등 경제계 인사, 언론계, 학계 인사와 한·헝가리 원탁회의 참석 한국측 인사 및 현지 주재 일본상사 지사장등 2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이번 삼성물산의 지사 개설은 한·헝가리 경제협력을 실증하는 첫사례로 현지 국영방송인 MPV는 삼성물산 박태서 부사장과 한국 기업의 헝가리내 최초의 지사 개설의 의와 활동상황, 한·헝가리 경제협력 방향등에 관해 10분에 걸친 인터뷰를 방영하는 등 현지 언론으로부터도 큰 관심을 모았다.

한편 삼성물산은 부다페스트 지사를 통해 전자, 섬유, 철강등의 수출과 화학상품과 기타 원료제품의 수입, 그리고 플랜트 수출 등 프로젝트성 영업을 추진하고 구상무역, 3국간 거래 기법등을 활용해 동구권 교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그간 동구권 진출의 교두보로 현지 거점확보에 노력해 지난 4월 13일 헝가리측으로부터 개설허가를 얻어 지난 5월 8일 주재원을 파견했다. 이외에도 삼성물산은 헬싱키지사를 개설하고 동독 및 폴란드에 지사개설을 추진하는 등 동구권 진출의 선두주자로서 향후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